

제3장 인간배아복제 시대와 기독교 신학

1. 들어가는 글: 인간배아복제 시대의 개막

2005년 5월 서울대학교 황우석 교수 연구팀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2004년에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 배양성공에 이어, 이번에는 난치병 환자의 체세포를 직접 복제하여 치료용 배아 줄기세포를 추출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 연구에 함께 참여했던 제럴드 새턴 미국 피츠버그대 교수는 이것은 ‘백신이나 항생제의 발견보다 더 획기적이며, 영국의 산업혁명에 비견할 만한 사건’이라면서 ‘한국 서울에서 어쩌면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꿀 생명과학 혁명이 일어났는지도 모른다.’고 격찬했다. 이른바 ‘황우석 쇼크’가 일어나고, 한국과학이 세계 생명과학 연구의 중심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이 ‘황우석 쾌거’는 한반도 전체를 열광케 했을 뿐만 아니라, ‘황우석 쇼크’는 미 정계를 강타했고,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거부하는 부시 미국대통령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기에 이르렀다. ‘황우석 신드롬’은 한국이 바이오 혁명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온 국민을 장밋빛 꿈에 사로잡히게 했다. 말하자면 한국인의 쇠 젓가락 기술이 드디어 일을 내 고만 것이다. 한국에 과학 영웅을 탄생시키고 신화를 창출한 것이다.

그런데 이 “황우석 신화”에는 심각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그것은 인간생명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될 이 연구가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생명윤리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과학자들 만에 의해 단독적으로 실행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한 단계도 아닌 두, 세 단계를 훌쩍 뛰어넘어버린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 과학자들 독단으로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복제 시대의 문을 여는 개막식을 해버린 것이다. 한국과학자들이 그러한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동안 한국교회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바로 이것이 ‘황우석 쇼크’가 한국기독교에 던지는 문제의 핵심이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관념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논의들이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초보적 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국과학자들은 그 다음 단계인 인간의 체세포복제를 통한 인간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고, 이 획기적인(?) 개가를 한국정부와 국민의 강력한 뒷받침을 힘입어서 거의 기정사실화 해버린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그 다음 단계인 인간의 체세포에서 유전자를 꺼내서 핵을 제거한 돼지의 난소에 핵이식하는 이종간 핵치환 교잡에 의한 인간배아 복제를 준비하고 있고, 이미 착수해버렸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좋은 싫든 간에 이 땅에 이미 인간배아복제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미 앞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한국교회는 각성해야 한다. 비록 인간배아복제는 막지 못했지만, 그 다음 단계인 이종간 핵이식에 의한 인간-동물 배아복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한다. 인간-동물 배아복제는 반인반수의 잡종, 키메라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에 맛을 들였고, 정부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한국과학자들이 이 연구를 포기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만은 저지해야 한다. 그것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일 것이다. 만약 한국교회가 한국 생명과학자들이 이 루비콘 강마저 건너게 내버려 둔다면, 다시 말해서 한국 땅에 반인반수의 키메라가 생성되고 인간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과연 한국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보존하고 생명을 지키는 지킴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창조된 생명질서를 교란하고 혼탁케 하는 생명 난개발을 방관한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인간배아복제시대를 맞이하여 그에 걸맞는 기독교 신학, 특히 신학적 인간론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그동안 미국에서 진행된 인간배아 줄기세포 논쟁에서 돌출된 네 가지의 핵심주제들, 곧 배아의 생명성,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정의, 존경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아직까지 그 어느 누구도 이 주제들에 대해 완전한 대답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이 글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몇 가지 기본적인 단초들을 제공하는데서 그 의무를 다할 것이다.

2. 배아는 생명인가?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최초의 논쟁은 배아가 생명(person)이나 또는 물체(property)냐 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과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배아는 자궁벽에 착상하기 이전, 원시선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생명이 아니라, 하나의 물체인 세포덩어리라고 주장한다(14일 원칙).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로마 가톨릭교회와 보수적인 개신교회들은 이 견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다. 바티칸은 인간 배아는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완전한 인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존엄성과 도덕적 지위를 명백하게 주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내부 세포덩어리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하기 위해 배아세포의 영양막을 파괴하는 행위, 곧 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이 두 입장들은 서로 지나치게 극단적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1998년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설립된 미국정부의 국가생명윤리위원회(NBAC)의 입장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좀 더 발전된 내용들을 보여준다. NBAC는 앞에 언급한 두 극단적인 입장들 사이에 온건한 중도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인간배아는 인간생명의 한 형태이지만, 아직 완성된 한 인격주체는 아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록 한 인격체와 동일한 수준은 아닐지라도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전능성형(totipotency)과 다능성형(pluripotency)이라는 다소 복잡한 구분이 나온다. 쉽게 말해서 배아는 전능성형적인 반면 줄기세포는 다능성형적이다. 한편으로 전능성형적인 배아는 하나의 잠재적 인간이므로 그것에 상처를 입히고, 배아를 파괴하는 행위를 가져오는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다능성형적 줄기세포는 잠재적 인간으로서의 배아가 아니므로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입장에도 모순이 있다. 왜냐하면 전혀 개별화되지 않은 배아를 개별화(개성)되어야 만 가능한 인간 개체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논쟁은 유익성(beneficence)과 비유해성(nonmalificence)의 원칙들 간의 대립이다. 이것은 태아의 낙태문제에 관한 공리주의적 윤리와 평등보호의 원칙 간의 논쟁과 유사하다. 유익성 원칙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치료의 기회제공과 인류건강과 복지를 위한 공리적 유익성을 내세우며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옹호한다. 그런가 하면 비유해

성 원칙은 인간생명의 가장 취약한 형태인 배아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것을 반대한다. 후자는 배반포를 파괴하는 것은 인간생명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일종의 유아살해 혹은 심지어 새로운 형태의 안락사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며 비판한다. 인간배아는 인간 존재의 가장 적은 형태이며 따라서 존엄성을 갖는다고 전제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연적으로 인간 및 그 존엄성의 정의에 관한 논의에 귀착된다.

3. 인간의 존엄성이란?

배아 줄기세포 논쟁에서 많이 사용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정의의 출처는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이다. 칸트는 인간 개체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단순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목적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교회들도 이 입장을 지지한다. 캐나다 연합교회는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인간존재는 궁극적 가치를 지닌 인간이며, 언제나 다른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선언했다. 보수적인 미국 남침례교회는 인간배아를 “인간공동체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으로 명백하게 규정했다. 심지어 진보적 성향을 가진 미국 연합감리교회까지도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반대하면서,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 “이와 같은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며 인간성과 생명의 신성한 차원들을 무시하는 길로 우리를 서둘러 나아가게 한다. 그리고 생명이 조종되고, 통제되며, 특허를 취득하게 되고, 매매되는 상품으로 전락하는 길에 빠지게 한다.” 바티칸의 입장은 역시 분명하다: “배반포의 내부세포 덩어리의 제거하는 것은 인간배아를 치명적이고 회복될 수 없도록 파괴하고 그 발달을 막는 것임으로 매우 비도덕적이고 결과적으로 심각한 불법 행위이다.”

이 분야에 저명한 미국 신학자 테드 피터스(Ted Peters)는 이러한 바티칸의 주장의 배후에는 “영혼주입설”(물질인 몸 안에 영혼을 주입)과 “유전자적 유일성”(새로운 지놈의 탄생) 논리 사이의 “암묵적인 결합”이 깔려있다고 주장한다.¹⁾ 최근 작고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만일 인간의 육체가 선재하는 살아 있는 물질(진화)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영적인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 순간적으로 창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황 교서 '생명의 복음 (Evangelium Vitae)'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교회는 언제나 인간생식의 결과는 그것이 존재케 되는 처음 순간으로부터, 육체와 영혼의 결합체와 인간의 총체로서 도덕적으로 무조건 존중될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가르쳐왔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 인간은 수정되는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의 인격체로서 간주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 그 동일한 순간으로부터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 권리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고, 생명에 관련된 모든 순수한 인간존재에 대한 불가침적인 권리가 최우선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가톨릭교회는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완전히 문을 닫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혼주입설과 유전자적 유일성 논리의 암묵적 결합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우선 배아학은 수정을 순간적인 것보다는 자궁내 착상에 이르는 약 2주간에 걸친 복잡한 과정으로 인식한다. 더욱이 아직 “배반포는 개별적 인격체(an individual person)가 아니고 잠재적 인격체(a potential person)이다.” 마치 도토리가 실제적인 참나무가 아니듯이 한 잠재적 인격체는 한실제적 인격체로 간주될 수 없다. 또한 유전자적 유일성을 인간 존엄

1) Ted Peters, "Embryonic Persons in the Cloning and Stem Cell Debates," *Theology and Science* 1/1(2003), 51-79.

성의 근거로 믿는 바티칸의 견해는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쌍둥이 복제는 수정 후 14일 동안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로마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따르면, 일란성 쌍둥이를 유전자적 오류로 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들의 정당한 인간존재로서의 존엄성을 부인하는 결정적인 자기모순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지만, 만약 복제인간이 출현하게 될 경우, 그들을 인간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된다는 결정적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서구적 개념은 인간존재의 신성함을 믿는 기독교적 견해와 인간존재의 본질적 가치를 주창하는 계몽주의적 사유의 두 기둥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져 있다.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대상으로서의 인간의 인격성을 강조하고, 칸트는 인간됨의 중심 가치로서 자율성과 주체적 결단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입장들은 모두 여전히 근본적으로는 인간 존엄성을 본질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서구 인간론의 단점들, 곧 실체론, 개인주의,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 인간이란?

이와 관련하여 테드 피터스는 세 가지 유형의 신학적 인간론을 제시한다. 곧 선천적 인간론(person as innate), 관계적 인간론(person in communion), 예시적 인간론(person as proleptic)이다. (1)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첫 번째 유형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선천적이고 내재적인 것으로서 인식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신학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은 선천적이기보다는 주어진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존엄성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존엄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주어진 것이고, 그런 다음에야 주장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계몽주의에 영향을 받은 서구사상은 인간 존엄성이 선천적이며, 따라서 출생과 더불어 주어진다고 주장했다. 유전자 시대에 이러한 원인론적 사고방식은 바티칸의 견해처럼 인간 존엄성은 난자가 수정되고 접합체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확립되는 유전자의 유일성에 의존한다는 지나치게 단순한 입장을 유발시켰다.

(2) 둘째 유형은 인간의 존엄성이란 단지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관계의 열매”라고 인식한다. 유전자적 유일성의 논리는 일란성 쌍둥이가 존재한다는 현실성과 장차 복제인간이 출현할 가능성 때문에 인간성, 존엄성 그리고 도덕성의 기초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거기에는 개인주의적 잔재가 남아있고 개인적 자율성이라는 엘리트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인 전제를 근거로 하고 있다. 자연은 보다 관계적이고, 한 인격은 유전자(DNA)만 가지고 형성되지 못한다. “배아가 약 14일 정도 지나서 일단 어머니의 자궁벽에 착상하게 되면, 배아는 어머니로부터 아기로서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시키는 호르몬 신호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 개체의 형성에 있어서 관계성이 선천성에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존엄성이란 궁극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 곧 선물이다.

더욱이 삼위일체론은 신학적으로 인간이란 공동체적 개념이라고 연표한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 인간은 “사귄 안에 있는 인간” 또는 “관계 안에 있는 인간”이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재적 관계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존재의 관계성을 확립하기 때문이다. 이 삼위일체적 관계성은 한 인간의 개인적이고 생물적인 기원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의 개방성”을 제시한다. “한 인격체는 그 자아를 둘러싼 경계선들을 초월하는 과정 속에 있는 자아이다. 이 자기초월성이 자유의 근거이다.” 그러므로 “참된 인간성은 우리와 물리적

세계와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과의 초생물적인 사귀를 통해 구현된다.”

(3) 기독교 종말론을 배경으로 하는 셋째 유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예시적” 또는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존엄성은 기원(origin)보다는 결과(destiny)에서, 우리의 과거보다는 우리의 미래로부터 파생된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도상에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신적인 생명 안에서 그들의 부활과 그리스도와 하나 됨을 예견함으로써 그들의 인간존재로서의 총명한 본질을 선취하게 된다. 우리의 현재적 존엄성은 이 선취에 따른 일부분이며, 우리의 영원한 가치의 예시는 영원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다. 존엄성은 본래 선천적인 것이 아니요, 종말론적이요, 소급적으로 선천적이다.” 그러므로 피터스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최종적인 존엄성은 종말론적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성취함으로써 수반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유전자 코드에 부여된 것들이나 우리가 태어날 때 동반된 어떤 것들을 넘어선다. 존엄성은 아직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존엄성을 부여할 때를 사회적으로 앞당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의한 미래적 완성작품이다. 이 시대에 있어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그 미래적 성취에 대한 선취로서 존엄성을 부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존엄성을 요구하도록 만드는데 있다.

인간배아복제 시대를 맞이하여 이 유형론은 신학적 인간론에 중요한 진전을 이룩해 주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본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와 같이 관계적이고 예시적인 것이다. 또한 이 유형론은 유전자 시대의 새로운 신학적 인간론은 관계성 안에 인간존재 그리고 종말론적 인간성의 선취로서의 인간존재에 초점을 맞추도록 강조하고 있다. 결국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유전자 결정론 내지 유전자 신화에서 이탈할 것을 제안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배아는 성장한 인간 그 자체처럼 관계적이고 예시적이지 아직 완성된 인격체가 아닌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물체가 아니다. 그것은 잠재적, 예시적 생명으로서 마땅히 존경되어야 한다.

5. 생명존중이란?

그래서 인간배아 줄기세포 논쟁에 사용되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존경(*respect*)이다. 미국인간배아연구위원회(1994), 미국국가생물윤리자문위원회(1999) 그리고 제론사(Geron Corp.)의 윤리자문위원회등과 같은 윤리기관들은 인간 배아는 적당하고 적절하게 존경되는 가운데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인간배아는 완전히 하나의 개별적인 인격체로 간주될 수는 없어도, 존경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존경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더욱이 인간배아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실험실에서 생명 존경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인간배아가 창조되고 추출되고 조작되는 시점에서 존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에 관해 미국의 기독교윤리학자 카렌 레바크즈(Karen Lebacqz)는 존경의 다섯 가지 유형들을 제시하였다.²⁾

2) Karen Lebacqz, "On the Elusive Nature of Respect," in *The Human Embryonic Stem Cell Debate: Science, Ethics, and Public Policy*, ed. by S. Holland, K. Lebacqz, L. Zoloth (Cambridge, Mass., London: MIT Press 2001), 149-62.

(1) 첫째, 인간성에 대한 존중(*respect for person*)은 또 다시 인간성에 대한 칸트주의적 기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기준은 논리적 사고능력과 이성적인 의지 그리고 규칙에 의해 행동을 다스릴 수 있는 자율성과 자기결정능력을 인격체의 특징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존중은 “다른 사람의 이성적 판단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들의 규범도 유효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능동적인 공감과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배아는, 비록 이성적이고 자아규범적인 존재로 발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율성과 자아결정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칸트주의적 인간은 배아수준의 논의에서는 부적절하다.

(2) 둘째, 유대-기독교적 전통은 가난한 사람들과 이방인, 나그네, 고아와 과부들 같은 민중들, 곧 사회적 억압에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에게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respect for nonperson*). 이 관점은 첫째 칸트주의적 인간 유형보다는 배아에 대한 존경의 실현성이 높다. 그렇지만 이 둘째 유형은 여전히 인간중심적이다.

(3) 셋째 유형인 지각적 존재(*respect for sentient beings*)에 대한 존경의 필요성이 여기에서 동물의 권리(*animal rights*)와 관련되어 나온다.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인 지각은 인간성의 특징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인간이 아닌 것들에 대한 존경의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육식주의를 거부하고 채식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영양섭취를 위해서 동물을 도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존경은 먹이가 되는 동물이 살육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고통과 공포 그리고 스트레스를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다. 성경이 동물의 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피(생명)를 마시는 것을 율법적으로 금지하고, 아메리카 원주민이 식용을 위해 도살한 동물에게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는 것은 이러한 통찰을 예증한다. 그러므로 이 유형은 배아의 파괴와 조작이 반드시 불경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실행할 경우 반드시 고통을 최소화하고 공포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관심을 쏟는 존경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4)-(5) 그러나 초기배아는 느낌과 감정에 대한 신체적인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자각적인 존재는 아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최소화하고 공포를 줄이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따라서 넷째와 다섯째 유형들은 식물들이나 생태계와 같은 비지각적인 것들에 관련된다. 이 유형들에 있어서 존경은 다른 것들과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의 “독립적 가치”에 주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존경은 우리에게 “타자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과 자연을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for us*) 보기보다는 “그 자체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가치”로서(*in and of itself*)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겸손하게 인간중심적 시각을 버리고 자연의 모든 것들, 곧 지각적 피조물들뿐만 아니라, 대지, 바위들, 나무들 그리고 나뭇잎들을 존경심과 경이로움을 가지고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레바크는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하여 이 유형론이 함축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연구자들은 그들이 동의해준 사양 안에서 주의 깊게 실험을 실행함으로써 자율적 인간들에 대한 존경을 표해야 한다. 고통과 공포를 격감시켜줌으로써 지각적 존재들에 대한 존경을 표해야 한다. [나아가서]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를 주의 깊게 실천함으로써 초기 배아세포에 대한 존경을 표해야 할 것이다. 그 윤리에는 배아세포 사용의 필요성을 엄격히 통제하고, 그것이 조작되고 심지어 언급되는 방법까지도 제한하며, 가능한대로 죽음보다는 생명을 선택함으로써 하나의 인간존재가 될 수 있는 그것의 잠재성을 존경하

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6. 나가는 글: 경(敬)의 신학을 향하여

테드 피터스와 카렌 레바크와 같은 미국 신학자들은 인간배아 복제시대를 대비하여 이미 신학적, 윤리적으로 준비해 왔다. 사실 미국의 생명과학은 기술적 이유보다는 교회와 사회가 거부하는 바람에 아직 배아복제 연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교회와 신학자들이 준비는커녕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생명과학자들은 쩌빠게 뛰어난 쇠젧가락 기술을 사용하여 일을 저질러 버렸다. 그것도 몇 단계 앞질러 달려 나가서 세계 최초의 인간배아 복제 시대를 도래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된 것이 과학자들만의 과오라고 치부하고 배아줄기 세포연구를 반대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무책임한 입장만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한국교회가 나서서 인간배아 복제 시대의 생명 윤리와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는데 앞장 설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자명하다. 그나마 지금 한국에서 이 생명 난개발의 물줄기를 막을 수 있는 주체는 교회밖에 없는 듯하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깨어나야 한다. 천성산 터널 사건이후 환경 난개발에 대한 의식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으나,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중대한 의미를 가진 생명 난개발에 대해서는 거의 백지의 상태에 가까운 것 같다. 더 이상 우리 생명과학자들이 함부로 앞질러 나가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거듭 말하지만 이 땅에 반인반수의 키메라가 생성되는 것을 방관한다면,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들을 순수하게 보존하는 구원의 방주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희망적인 것은 미국 신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신학적 인간론이 우리의 전통적 인간관에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피터스의 관계적 인간론은 인간을 고립된 자아가 아닌 관계의 그물망의 중심으로 보는 동양적 인간론과 공명하고 있다. 피터스의 예시적 인간론은 성화론은 물론이고 유교적 수양론(修身)과 만나고 있다. 배아, 태아, 유아, 그리고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완전한 인격체가 아닌 것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늘이 부여한 품성(天命)을 성취할 때까지 성화와 수신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과학자들과 종교인들 모두에게 성화와 수신의 과정은 필수적인 것이다.

더욱이 생명경외 및 존중사상, 특히 경(敬) 사상은 한국적 사유의 핵심이다. 레바크가 제시하는 존경의 기독교 윤리학에서 경사상의 짙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재미집을 피해 걸었던 선비들의 경사상이 이 시대의 신학을 위한 주요자원으로서 재조명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구의 신학자들이 서둘러 서구신학의 틀을 벗고 동양적 경의 신학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배아복제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하루빨리 경의 신학과 같은 새로운 한국신학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아마도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특별히 예비해 놓으신 선물일 것이다.